

Vol. 12 | 2020 WINTER

# 티처빌 매거진

## Zoom in Focus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 Class Know-How

즐거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쌔동네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  
원격수업, ‘학생을 위한 도구 활용’ 고민할 시점이다

## Hot EduTech

비대면 스쿨 원격수업 패키지

## Interview & People

‘행복한 학교’, 학교자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Teacher Life

내면과 외면의 맛을 갖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ON’일 때 체육교사, ‘OFF’일 때 등산마니아



##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

###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0년 티처빌 회원등급제 도입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계절이 가는 것을 느낄 새도 없이  
벚꽃 한번 보고 나면 봄과 안녕,  
여름밤 한강 산책 한번 하고 나면 여름과 안녕,  
코스모스와 인사하고, 노오란 은행나무 아래  
비추는 햇살에 반짝! 하고 나면 가을과 안녕,  
곧,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나면 겨울과도, 2020년과도 안녕이겠죠.  
2021년엔 잃어버린 2020년을 대신해 하루하루,  
한 계절 한 계절 깊이 느낄 수 있게 아름다운  
날들이길 기원합니다.

사진. 정혜란 서울금옥초등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나홀로 나무

# CONTENTS

Vol.12 | 2020 WINTER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0년 12월 14일 통권 제12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kville.com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Zoom in Focus

- 06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 폴 김
- 10 2022 대학 입시의 주요 변화와 전망 · 박정훈

## Class Know-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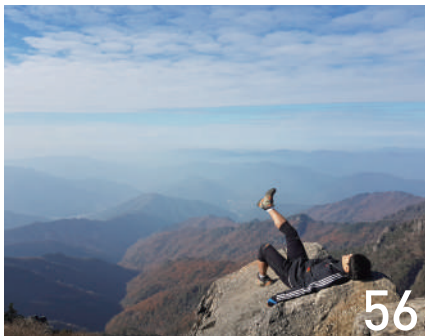
- 14 즐기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 강용철
- 18 '쌤동네'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 · 신봉석
- 22 쉽고 자세히 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윤현철
- 26 원격수업, '학생을 위한 도구 활용'  
고민할 시점이다 · 서영인
- 30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 박현애

## Hot EduTech

- 32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비대면 스쿨 원격수업 패키지 · 티처몰

## Interview & People

- 34 '행복한 학교', 학교자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임재일



- 38 “선생님, 작가의 꿈을 이루어 보세요”  
• 이은경
- 42 미래 교육에서 교육자가 갖춰야 할 역량  
• 윤경동

#### Teacherville News

- 44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6 교사를 위한 북러닝 서비스,  
쌤북(SSAM-BOOK)
- 48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0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 Teache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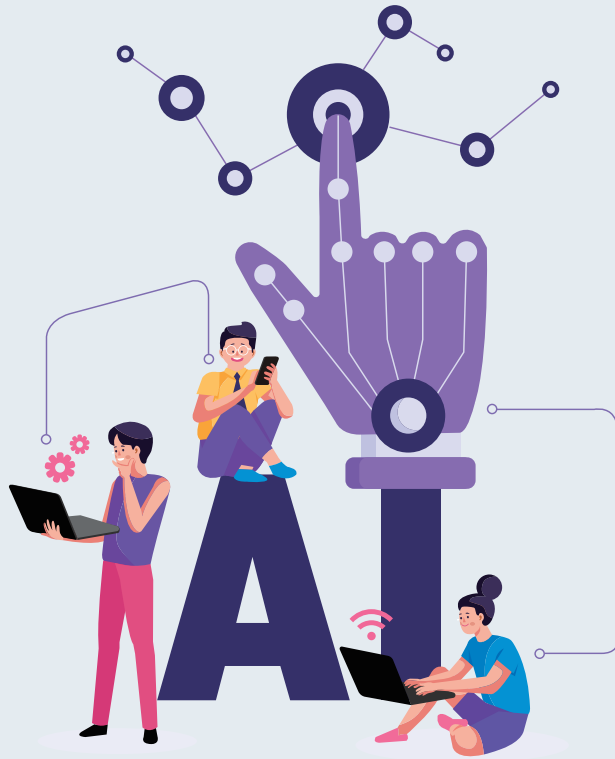
- 52 “내면과 외면의 맛을 갖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이원준
- 56 ‘ON’일 때 체육교사, ‘OFF’일 때 등산마니아  
• 황준필

#### Book

- 60 줌 수업에 날개를 달아 줌 /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  
창의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 Cartoon

- 62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섭섭한 라이프 • 송정섭



# 인공지능(AI) 미래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 실리콘밸리 산불 현장에서 찾은 미래교육 모델

글. 폴 김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있다. 다수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강연식 교수법을 고수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현장에서는 대부분 줌(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접속 불량 문제나 사용자 교육 문제, 미숙한 준비와 예상 밖의 상황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계 아이러니

지금 교육계는 분명 아이러니한 시기와 상황에 놓여 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 변화하던 일들이 불과 몇 주 만에 바뀌었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

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교육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당연히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길 바라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더 혁신적인 교육모델이 줄지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기술 활용 능력은 필수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와 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흐름에서 뒤처져 금세 도태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교육 환경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활용해 새로운 운영 방식을 시도하는 학교는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실리콘밸리 산불 진화에 나선 학생 애슐리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 교육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으며, 미래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인재 양성이다. 2020년 실리콘밸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큰 공을 세운 치누크 헬리콥터 조종사이자 19세 대학 신입생을 보면, 미래 인재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열정을 추구해가는 관점, 덧붙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탐구 중심의 창의적 학습방법과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통합한 다양한 교육모델 사례도 엿볼 수 있다. 지난 8월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샌타클래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북쪽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당시 실리콘밸리는 연기에 갇혀 지구 종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몇 주 동안 연기로 가득한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화재 현장에 발화 지연제를 정확히 뿌릴 수 있는 더 큰 소방용 헬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치누크 헬기가 투입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거대한 치누크 헬기의 부조종사는 몬테나주 빌링스 출신의 19세 소녀 애슐리 블레인이었다. 애슐리는 밤낮으로 치누크 헬기를 조종하며 화재 진압을 했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했다.



#### 약력 풀 김

- 現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학장,  
최고기술경영자(CTO)
- 저서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공저),  
『교육의 미래, 걸쳐  
엔지니어링』(공저) 등 다수

### 애슐리에게서 발견하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애슐리는 13세부터 비행기를 조종했다. 19세에는 계기비행 자격을 소지한 비행 교관이 되었고, 쌍발 제트기 조종사뿐 아니라 블랙호크 조종사, 치누크 부조종사 자격까지 갖추었다. 서로 다른 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는 건 여러 영역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리학부터 공학, 수학, 지구과학 생체학에 심리학까지 정말 많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배운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애슐리는 19세에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그 외 분야에서도 어느 역할이든 맡을 수 있다. 짧은 만 대단한 경험을 통해 항공 관제사들, 승무원들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방법을 배웠고,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듯 애슐리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21세기 핵심역량인 4C를 모두 갖춘 셈이다. 4가지 핵심역량이 무엇일까?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방식, 창의력이 그것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나서서 도우려는 영웅적인 면모와 함께 타인을 향한 연민과 헌신의 모습도 보여준다.

**4C**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을  
말한다.

애슐리에게는 선택권이 많다. 공군 입대도 가능하고, 여객기 조종사가 될 수도 있고, 항공기 엔지니어나 테스트 엔지니어링 조종사, 우주 비행사, 아니면 최고 수준의 조종 경력을 가진 비행 교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직업도 가능하다. 이제 겨우 19세인 까닭이다. 애슐리가 조종사가 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평생 학습자였기 때문이었다.

애슐리가 세운 공훈은 그간 실리콘밸리에서 이뤄낸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이나 성공보다 훨씬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많은 여학생에게 영감을 주었고, 훌륭한 롤모델이 되었다. 애슐리는 흔쾌히 방송에 출연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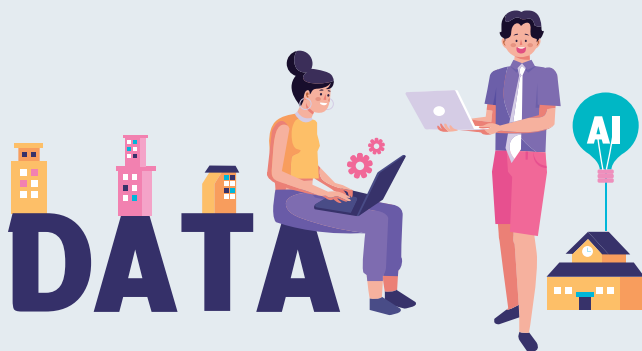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많은 공을 들이고 성실히 노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몽상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니던가. 나는 애슐리에게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취 목표가 뚜렷한 목적 있는 삶’을 발견했다. ‘기술의 가치’와 ‘4C’, ‘평생교육’의 가치와 의미도 발견했다. 이것은 미래사회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인재 양성에 대해 토론하는 수많은 교육 콘퍼런스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 코로나19가 가져온 기술 도입과 교육 혁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학교에 도입해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진보는 충분히 이뤄냈다. 그러나 학교의 오래된 관행적인 틀에 여전히 얽매어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영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솔루션 개발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솔루션도 있고, 협동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가 더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도 있다.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사회·정서적 능력, 협동 기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가정용 과학 실험기구 세트나 직접 만들어 보는 과학 조립 세트를 제작하고 있다.



수십 년간 성장이 더디던 온라인 교육 기업들은 이제 빠른 속도로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는 ‘기술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채용하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도구를 도입해 100%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및 교육’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변화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단언컨대 오늘날 교육계에 혁신을 일으킨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 미래교육, '멈추지 않는 배움'의 설계로부터 시작하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먼저 오늘날의 학교 상황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과연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효과적인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우리 학교가 미래의 주역들에게 충분한 도전 기회를 주고 있는가?

나는 애슐리와 같이 4C 이상의 역량을 갖추고 평생학습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지향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학교를 알고 있다. 마운트버넌 같은 학교들이다. 이 학교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직접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도록 기회를 준다. 이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도 갖추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력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며 개발한다. 서로의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이제 우리의 학교도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는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학교와 교사, 학생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물론 이러한 학교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 나가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부모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애슐리에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된 조종사 아버지가 계셨다. 그리고 그에게서 연민과 헌신의 마음을 배웠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사회·국가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이다. 더 배워야 한다. 나 또한 그러하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막 황혼기에 접어들지만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삶의 마지막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면을 빌려 풀어낸 이야기가 미래의 주역들이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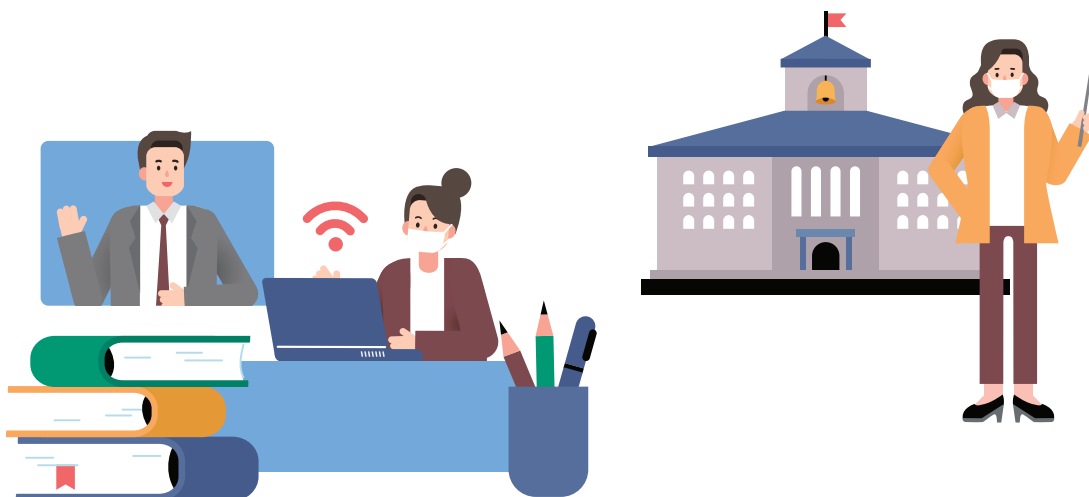
##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에서도 입시는 계속된다 2022 대학 입시의 주요 변화와 전망

글. 박정훈 입시투데이 대표컨설턴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교실 풍경도 확연히 달라졌다. 혼란스러웠던 연초를 뒤로하고 교육계는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그려보고 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의 한편에서 12월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의 구슬땀은 계속됐다. 모두가 미래교육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 입을 모으지만 막상 입시와 연계하면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교육이나 입시도 실리콘밸리의 산불을 진화한 애슬리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흐르겠지만, 당장 수능을 코앞에 둔 아이들에겐 너무 먼 이야기다. 자칫 미래교육을 가는 길에 현재의 중학생·고등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에서도 2022학년도 대입을 챙겨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미래교육으로 가는 길에서 대한민국 입시가 가야 할 방향도 생각해볼길 바란다.

###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선택형 수능을 처음 도입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는 수시모집이 소폭 감소했지만, 정시모집이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시모집 선발 규모가 75.7%인 만큼 여전히 대다수 수험생에게 수시는 필수, 정시는 선택인 구조라 할 수 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감소하고, 학교장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정시모집 선발 규모도 많이 늘어났다. 또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주요 대학들의 모집군 이동이 나타났다.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은 학부생을 다시 선발하는 등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기에 각 대학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잘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 1)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변수에서도 대학들이 수시선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수시모집에서 다양한 전형을 통해 원하는 수험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에 우수한 수험생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최근 흐름에 맞춰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의 이유로 중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던 적성고사 전형은 폐지되었다.

### 2) 선택형 수능 도입 첫해

2022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따라 수능이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공통+선택형 구조로 변화했다. 중요한 것은 주요 대학들의 자연계 모집단위 중 수학에서 미적분/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하고, 탐구에서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별로 수능 지정과목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대학의 전형계획을 살펴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약력 박정훈

- 입시투데이 대표
- 출거운학교 진학 컨설턴트
- 네이버 입시스토리 카페 운영자
- 틈매경 입시칼럼니스트
- 저서 『서울대 명문대 입시전략』, 『입시는 전략이다』, 『학생부종합전형사용설명서』 등 다수

### 3) 주요 대학 정시 확대로 정시 경쟁 완화

2022학년도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와 맞물려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 확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감소로 고교유형이나 학생 개인별 환경에 따라 정시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시모집은 여전히 재수생이 고3 수험생보다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 4) 약대 선발로 자연계열 입시 큰 변화 예상

2022학년도에는 약대를 학부제로 전환해 선발하는데 전국 37개교 중 미전

환 3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된다. 자연계열 상위권 수험생들은 최근 반도체학과 등 인기 학과의 신설과 약대 선발 등 전체적으로 입시 선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년과 비교하면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수험생의 경우 의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약대 선발로 인해 생명공학과·화학공학과 등 기존 학과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 5)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과 서류 블라인드 평가에 주시해야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되었다. 2021학년도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를 참고해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 참고해야 한다. ‘대학어디가’에서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은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기재 사항들이 줄어들고, 교사추천서가 폐지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도 줄어들게 되는데 대학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자료가 줄어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나 과목별 세특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 6) 2022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한 조언

2022학년도 대입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기에 ‘대학어디가’ 사이트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썬진학’, 대학별 입학처 등에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입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학어디가’ 사이트에서는 2020년부터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입시 결과와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수시와 정시에서 교과와 수능성적을 대학별 환산점수로 산출해 예년의 입시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하길 추천한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썬진학’ 사이트에서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다양한 합격·불합격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입시분석 자료가 있어 잘 활용한다면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와 전공안내서, 논술가이드북 다양한 자료가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해보자. **T**





# 2021년 계기수업? + 고민말고 크랩쌤에게 물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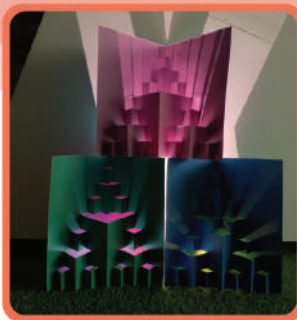
〈메이크랩〉 교과연계 메이커키트!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메이커다!



제작 영상  
무료 제공!



지켜라  
패키지



프랙탈카드



종이회로



이겨라  
패키지



버저닝구게임



매커니컬 핸드



스틱맨 마리오네트

이러닝 강의,  
학습지도안까지  
준비되어 있쥬



달려라  
패키지



웜기어



진동로봇



클라이밍 로봇

이미 많은 학교에서  
캠프도 하고있어요!

지금 바로  
티쳐물로 사러가기 ↓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티쳐빌 융합교육'으로 문의해 주세요.

# 즐거다! 미디어를, 키우다! 생각을, 누리다! 세상을 미래 시대의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sup>1)</sup>

글. 강용철 경희여자중학교 선생님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미디어에 노출된다. 갓난쟁이 때부터 부모가 틀어놓은 TV에 노출되고, 빠르면 3~4세 때부터 유튜브를 접하게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 미디어는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TV만 보면 바보가 된다.’는 옛말처럼 미디어가 제공하는 내용을 사리 분별없이 받아들이면 능동적 사고와 행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여 요즘 부쩍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 교육은 미디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미디어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준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강용철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1) 본 원고는 2018년 아침독서운동본부에 기고한 글을 재구성했다.



## 미디어, 삶의 일부가 되다

2014년 미국의 미디어 컨설팅 회사인 액티베이트는 <기술과 미디어 전망 2016>이라는 리포트에 놀랍고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인간이 하루에 하는 활동, 즉 잠, 식사, 취미, TV 시청, 대화 등 활동시간을 더 했더니 31시간 28분이 나왔다는 것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한계 시간이 24시간인데 어찌된 일일까? 나머지 7시간의 병행 활동 중 대부분은 영상 시청, 음악 감상, SNS였다고 한다.<sup>2)</sup>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소비는 인간의 한계 시간마저 넘어서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포노 사피엔스'답게 디지털 기기,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이 학생을 바라보는 것, 아이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모아야 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미래 시대의 필요한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미디어에 담긴 정보의 질과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와 능력이다.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멍'하니 바라보지 않고, 미디어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안목을 키우는 교육, 미디어를 바라보는 냉철한 눈을 키워주는 교육이라 하겠다. 미디어의 노예가 아닌 미디어의 주인이 되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민주시민 교육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 약력 강용철

- 現 경희여자중학교 교사
- 現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現 EBS TV 강사, MBC 공부가 머니 패널
- 現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연수 강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前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할 때 기억해야 할 점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 수업을 설계할 때 다음 연구를 참고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2015년 경인교대 정현선 교수의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방안연구(교육부)」를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역량 및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밀접하

2) 통제변인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실험 데이터를 보면 미디어 의존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 관련되며, 미디어 체험과 미디어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행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특히 수행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정보 검색과 선택 / 의미 이해와 전달 / 감상과 향유 / 사회문화적 이해 /  
비판적 분석과 평가 / 미디어 기술 활용 / 창작과 제작 /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기를 추천해 본다.<sup>3)</sup>

###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던지는 4가지 질문

개인적으로 위의 수행목표 중에서 글쓴이가 관심을 가진 질문이 몇 가지 있다.

- 얼마나 보는가? 우리 학생들은 미디어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가?
- 무엇을 보는가? 우리 학생들은 좋은 미디어를 만나고 있는가?
- 어떻게 보는가? 우리 학생들은 미디어에 대해 질문을 하며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사례들

#### 1. 이미지 리터러시

- 뉴스에서 시의성이 있고, 내용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선정하기
- 각자 질문을 몇 개씩 만들기
- 짝꿍이나 모둠원과 질문에 대해 서로 의논하기
- 이미지의 내용, 만든 사람의 의도, 사용된 표현 전략에 토의하기

#### 2. 광고 비판적으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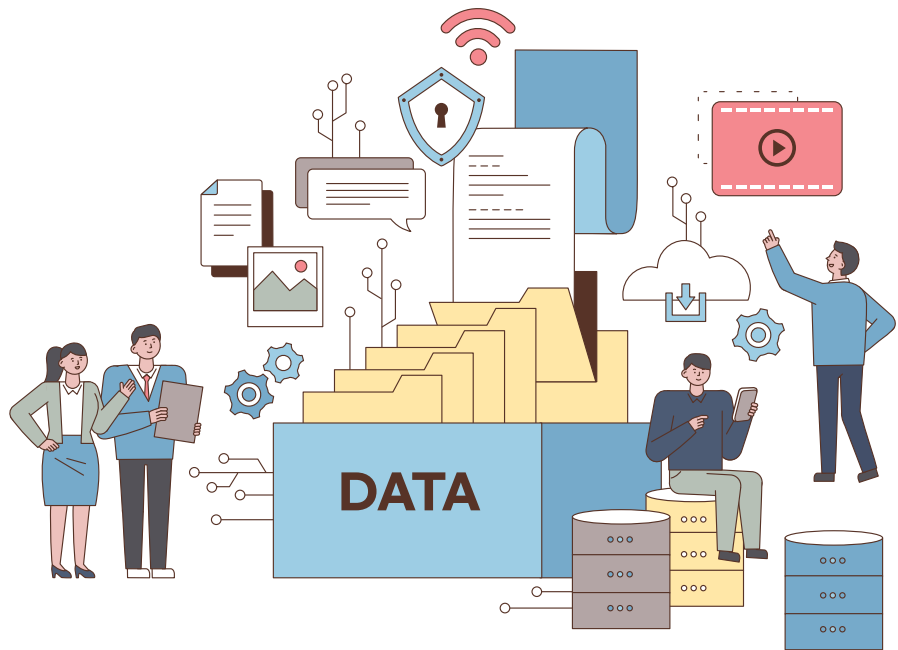
- 평소 본 광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를 몇 편 선정하기
- 좋은 광고의 순위 매기기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친구들과 토의하기
- 친구들이 고른 광고를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기

3)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교과목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교과의 성취기준에 필요한 역량의 개념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 '쌤동네'가 만들어가는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

글. 신봉석 나주 남평초등학교 선생님



쌤동네가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새 단장 한 지 3개월이 흘렀다.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업로드된 유료 콘텐츠만 60여 개. 그중 일부 콘텐츠는 인기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쌤동네 홈페이지 이용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교사들의 디지털 교육콘텐츠 공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의 콘텐츠 유·무료 생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고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고민 속에 유료 콘텐츠 생산을 망설인다. 해서 이런 고민과 망설임의 과정을 거쳐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쌤동네 유료 콘텐츠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만나는 초등역사 교과서 속 오류'의 콘텐츠 생산자인 신봉석 선생님께서 쌤동네에 유료 콘텐츠를 올린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 교사의 에너지 소진을 막는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 ' 쌤동네'

코로나19로 교육 활동이 움츠러들고 있어 상심이 큰 가운데 신선한 소식을 들었다. 바로 교육콘텐츠 공유 사이트인 '쌤동네'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 교사가 직접 제작한 유료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이미 교사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은 차고 넘칠 정도로 다양한데 보통 무료 나눔의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해서 유료 콘텐츠 게시를 두고 '과연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제작한 유료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까?', '내가 제작한 콘텐츠가 값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료일까?',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교사가 유료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등 다양한 걱정으로 바뀐 쌤동네에서 활동을 할지 말지를 두고 한동안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교육콘텐츠 제작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기로 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가 선생님들의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러한 움직임이 교육자료 공유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마음으로 도전했다.

## 연수 제작에는 제약이 많아... 쌤동네는 자유롭게 가능

알다시피 원격연수를 제작하거나 오프라인 직무연수를 만드는 과정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2019학년도에 제작한 '사기충전(史氣充電)! 아이들에게 역사를 말랑말랑하게' 원격연수 제작 과정에 일어난 일인데,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심사 중 이런 검토 의견이 있었다.

'교과서 오류와 같은 문제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9학년도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가운데 헌법 전문 오류를 설명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었다.

헌법 전문에 명백히 '대한국민'이라고 실려 있는 것을 교과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했고, 이 건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가르치라는 공문이 시행됐다. 현장 교사로서는 정말 명백한 사례임에도 재검토를 요청하는 신중함을 보인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검토 의견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검토 및 환류 과정을 거쳐 연수가 시작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처럼 긴 시간이 지난 후 공개될 경우, 그 효과가 떨어지는 자료도 더러 있었다. '현행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 후 수개월 후에 연수 자료가 오픈된다면 그 콘텐츠는 과연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약력 신봉석

- 現 전남 남평초등학교 교사
- 現 티처빌 원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강사
- 前 교육부 역사교원  
컨설팅 전문요원 양성과정  
직무연수 강사
- 저서 『초등 한국사 레시피  
1~2』 (테크빌교육, 2019),  
『한국사 놀이 수업 백과』  
(테크빌교육, 2020)

###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만나는 초등역사 교과서 속 오류’

이런 과정을 겪다 새로워진 쌤동네에 처음으로 공유한 콘텐츠가 바로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으로 만나는 초등역사 교과서 속 오류’다.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실제 오류가 있으니 거짓을 선동하는 제목은 아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역사 영역은 5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여러 학년에서 나누어 가르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3학년 2학기 때 선사시대 관련 내용을 잠시 학습하고, 4학년 때부터 5학년 1학기까지는 통사(通史) 학습을 쉬고, 5학년 2학기를 맞이하면 고조선부터 한국전쟁(6·25전쟁)까지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6학년 1학기 때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경제 성장을 잠시 학습하고 역사 학습은 끝을 맺기 때문이다.

글쓴이가 제작한 콘텐츠의 세부 내용은 각 시대(고조선, 삼국과 가야, 남북국, 고려, 조선, 대한제국, 독립운동 시기)의 교과서 서술 내용 가운데 잘못 서술된 부분들을 근거를 들어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콘텐츠였다. 삼국과 가야의 경우 5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2주 정도면 진도를 나가게끔 교과서 차시가 구성되어 있다. 원격연수 제작할 때처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빼앗긴다면 많은 선생님이 이미 수업이 끝난 후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불필요한(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과정이 생략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선생님들에게 콘텐츠를 제작해 소개해 드릴 수 있었고,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교과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글쓴이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다소 당황도 했지만 명백한 근거 자료를 보면서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살피는 안목도 기를 수 있었다는 반응도 있어 뿌듯했다.

### 유튜브가 아니라 쌤동네인 이유?

물론 꼭 ‘쌤동네’여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유튜브에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인기 없는 유튜버의 자료를 홍보할 만한 플랫폼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부 유명한 선생님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블로그는 많은 선생님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에서 직접 허가가 떨어져야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

“

앞으로 많은  
선생님이 유·무료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가 자리  
잡길 바란다.

”



★★★★★  
(5/5)

pha\*\*\*\*\*2020-09-17

기록과 지료, 전문기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류를 잡아주신 것 잘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참고자료이기에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교실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류들 찾으며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수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5학년을 맡고있지 않아 디지털 교과서를 참고하며 보았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2019년 8월 인쇄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렵지 않다면 디지털 교과서에서라도 먼저 오류가 잡히길 기대해 봅니다. 좋은 연수 감사합니다.

★★★★★  
(5/5)

leo\*\*\*\*2020-09-16

우리 모두는 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의 홍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는 우리들에게 바깥 볼 같이 받아들여져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는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역사관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연수였습니다.

★★★★★  
(5/5)

hi0\*\*\*2020-09-15

아이들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멋진 수업 소재입니다! 영상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교과서는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흥미진진하게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  
(5/5)

nok\*\*\*\*2020-09-15

아무 생각없이 넘어갔었던 교과서의 많은 장면과 표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사소한 것이지만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교과서를 받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고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추천합니다.^^

2

는 구조여서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쌤동네에 해당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게 되었고,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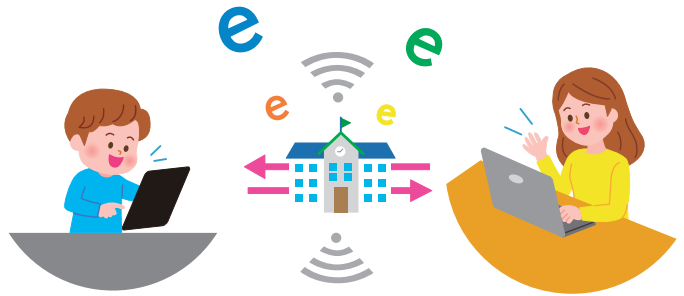
### 자유로운 확장자로 형식에 제한 없어

선생님들의 피드백에 힘입어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해온 수업 자료들을 무료 또는 유료로 꾸준히 올려 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압축파일 형태로도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 기존 수업에 사용했던 각종 활동지, 빗살무늬 토기 3D 도안 파일(STL 형식의 파일) 등도 차근차근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선생님이 유·무료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콘텐츠 생태계가 자리 잡길 바란다. ①

1.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역사) 교과서 비판적으로 읽기.
2. '쌤동네' 선생님들의 피드백.

# 쉽고 자세히 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글. 윤현철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초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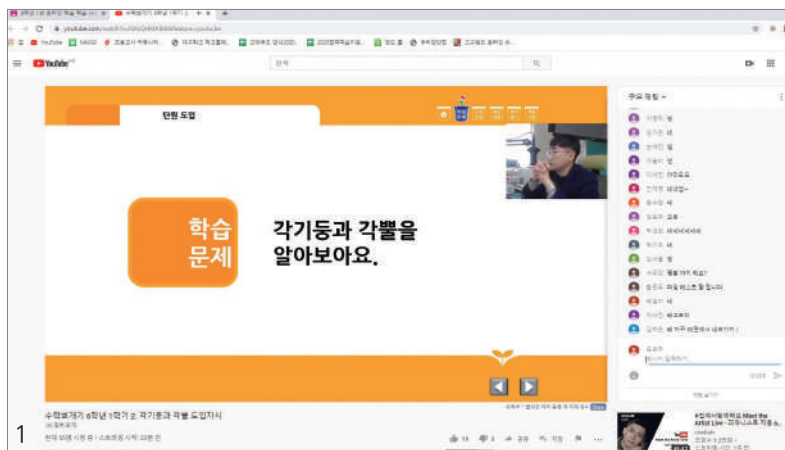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문제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다행히 많은 선생님이 원격수업 상황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준비한 덕에 일부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관련해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을 달아보았다.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무엇이고, 기존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쉽게 말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업로드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같은 시간대 온라인에서 만나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진행하는 수업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e학습터 등의 LMS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학생들의 활동 이력을 관리하면서 활동 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은 콘텐츠 활용 수업이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3 등교 시 A조 친구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나머지 2/3인 B조, C조는 집에서 동 시간대에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 실시간 쌍방향 수업.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계속 카메라 앞에 앉거나 서 있어야 하네요?

A.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을 통해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는 때도 있지만, 선생님이 아닌 다른 영상자료, 사진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선생님의 음성을 통해 설명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같은 시간대에 활용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아침부터 종일 해야 하나요?

A.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인사부터 매시간 수업 및 수업 마침 회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례 시간에 학생들과 만나서 카메라와 채팅창을 통해 인사하고 오늘의 수업 안내 등을 하면 좋습니다. 수업 성격에 따라 선생님 설명과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한 수업에 사용합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종례 시간에도 내일 시간표 안내와 오늘의 수업 반성 등에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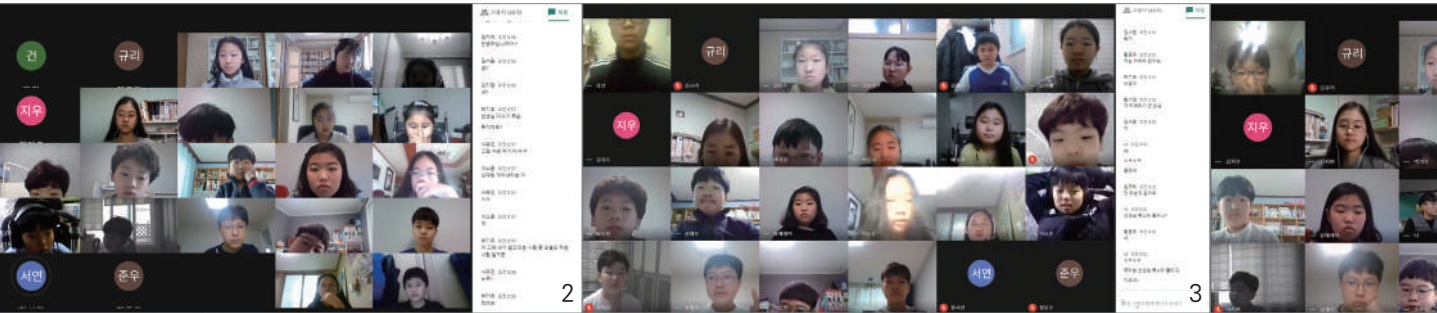
약력 윤현철

- 現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부설 초등학교 교사
-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 6학년 수학 집필진
- 『교실의 미래, 구글 클래스룸 집필』(프리에, 2019)
- 제44회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
- 제8회 전국교육정보화연구대회 대통령상

### Q. 교실에 있는 학생과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내용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Meet(또는 다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등)에 원격학습 학생과 회의를 시작한다.
- ② 회의 기능 중 화면 공유를 활용한다.
- ③-1. 교실에 있는 학생은 교실의 대형화면+선생님의 육성으로 수업을 듣는다.



③-2. 원격학습하는 학생은 집의 PC(또는 다른 기기)로 공유된 화면과 선생님의 마이크 음성으로 수업을 듣는다.

④ 교실의 학생은 육성으로 발표하고 선생님이 마이크를 통해 원격학습 중인 학생에게 전달하고 원격학습 중인 학생이 마이크를 발표하거나 채팅을 통해 발표하면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학생에게 전달해준다.

이런 프로세스로 매시간 진행하며 교실 또는 원격으로 수업 중인 학생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때, 교사와 학생 모두 장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데스크톱 PC를 이용할 경우 웹캠과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기종에 따라 마이크가 내장된 웹캠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 웹캠과 마이크가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어서 별다른 장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태블릿 PC와 휴대전화에도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불편함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장비를 대여해 주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Q. 카메라와 마이크가 없으면 어떡하나요?

A. 데스크톱 PC를 활용할 때 별도의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채팅창으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목소리를 직접 내는 때도 있지만, 마이크가 있어도 차분히 채팅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형과 비교해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의 질문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바로 피드백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4

때 더 집중이 잘되고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기분 덕에 더욱 수업이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익숙해지면 실제 교실에서 하는 수업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느끼는 분도 많고 원격에서 학습하는 학생들과 더 다양한 형태의 수업으로 발전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과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매시간 같은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전면등교, 2부제 등교, 3부제 등교 등의 등교 방식이 급작스럽게 전환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와 협력을 하려면 교실에서도 무조건 태블릿 PC나 노트북 또는 크롬북이 있어야 하나요?

A.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시간 장비를 활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사용 장비 1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갖춰져 있는 장비를 같은 학년에서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됩니다. 수업 성격에 따라 같은 학년에서 같이 의논하여 같이 수업을 구상하고 시간을 배분해서 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Q. 교대부초는 언제부터 화상 수업을 했나요?

A. 우리 학교는 2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G-suite 서비스를 전 교사, 전 학급, 전 학생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3월 9일부터 전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월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연수와 자체적인 사례공유, 협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3월 한 달의 경우 계정 문제, 사용법 문의 등으로 많은 질문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4월부터는 모두 완벽히 적응해 현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 Q.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교사용 장비를 추천한다면?

A. 교사들은 보통 데스크톱 PC이기 때문에 웹캠과 마이크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때 웹캠과 마이크를 별도로 설치하면 시스템 설정이 어려우므로 일체형을 추천합니다.

웹캠과 마이크가 함께 내장된 일체형 제품은 시중에 4만 원대부터 20만 원 후반대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예산에 맞춰서 구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⑦

2, 3, 4. 선생님과 원격 학습을 하는 학생들.



## 원격수업, '학생을 위한 도구 활용' 고민할 시점이다

글. 서영인 수성초등학교 선생님

올해 교육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원격수업'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했던 원격수업 중 즉각적인 대화나 피드백이 일어난 수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갑자기 바뀐 교육 환경 탓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다시 한 번 달라져야 할 시점이다. 기술을 잘 다루는 교사에게 연수를 받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동료 교사들끼리 배운 기술을 수차례 연습하고 어떤 도구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해 좀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가야 한다.

## 또다시 원격수업으로 돌아갈까?

‘만약 학교현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전국적 대유행)와 같은 위기 상황을 준비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원격수업을 선보일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등교수업을 추진하려는 우리 사회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학력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여론에서는 지속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우려하고 있고, 둘째, 어른과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한 몇몇 학생들의 비극적 사건을 더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라는 위험 상황에서도 등교수업을 추진하려는 상황 또한 계속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한 가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면 수업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기에 매우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두고 만약 또다시 원격수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또 없을 것이다.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학교가 사회적 기능을 꽤 충실히 해왔다는 뜻이다. 학교는 많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발달 수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 이는 에버레트 라이머가 쓴 『학교는 죽었다』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교육의 기능 4가지 중 2가지에 해당한다. 라이머는 ① 학생을 보호하는 기능 ② 사회적 선별의 기능 ③ 지식과 사상을 주입하는 기능 ④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전수하는 기능을 학교의 역할로 분석했는데, 현재 원격수업 상황에서 4가지 중 그나마 새로운 가치로 전달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④번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전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는 새로운 기술, 도구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와 오류가 생겨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고 탄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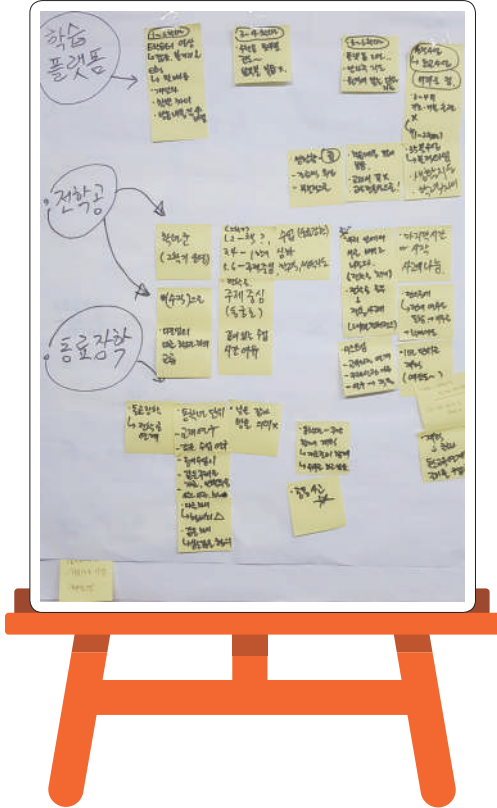
### 약력 서영인

- 現, 수성초등학교(부산다행복학교) 리더교사, 교육과정 부장
- 부산대학교 교육혁신전공 석사과정
- 교육부 학교 공간혁신 교원지원단
- 부산창의융합교육원 과학실험/천체관측 강사
- 교육웹진 <에듀콜라> 필진
-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 홍보 교사지원단

## 원격수업을 위한 도구 활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지역에 따라 부분 등교와 전면 등교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원격수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 싫다. 그러나 with-코로나19가 현실이고,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언제든 원격수업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거쳐왔던 길에 교육의 본질이 얼마나 살아 있었는지 검토해야 하고,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우리가 실천했던 원격수업이 ‘수업’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

수업은 기본적으로 교과 지식을 주제로 교사와 학생 간의 유의미한 학습 대화가 일어나는 시공간의 장이다. 원격수업 상황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 화두가 된 것 또한 학습자와 교사의 학습 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의 제약은 생각보다 커서 즉각적인 대화와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업이 이뤄지던 기존의 장을 원격 상황으로 어떻게 옮겨낼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중학생의 경우 학생을 수업 상황으로 참여시키는 동기의 부족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기술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교사와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의 장으로 학생을 초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학교현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장기전을 제대로 준비하고, 원격 수업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학생을 위한 도구 활용’ 시간을 마련해 학교 차원의 준비와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글쓴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도구가 급변했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방법의 부적응, 도구 활용의 미숙으로 배움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교육의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또한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거부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멀리 나아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수업의 본질을 생각하며 연수를 재조직해야

학교에서 이런 준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잘 다루는 교사를 초청해 교원 연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그러나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기술은 아무리 들어도 무용지물이다. 기술을 위한 연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달을 위한 과정으로 재조직되어야 하며, 수업 상황에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3~4회의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보는 식의 일회성 연수는 이제 끝내야 하며, 이는 이름 있는 강사나 기술을 앞서 익힌 교사의 초청보다는 학교 내부 구성원의 조직과 연대로 ‘수차례 연습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편 위와 같은 연습 형태의 연수는 교사의 교육과 수업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

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수업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은 무엇인가? 수업 중에 학습자와 교사의 유의미한 대화를 담화(교사와 학생 간의 유의미한 학습 대화)라고 하는데, 담화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공유되고 서로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흔히 학교현장에선 이런 상황을 가리켜 ‘피드백’ 혹은 ‘학습 대화’라고 말한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이뤄지기 힘든 소통과 피드백을 웹 기반 도구에 의지해야 하므로, 교사는 어떤 도구가 효과적이며 교육의 본질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실천교사모임에서 주최한 ‘비고츠키 아동학’ 소모임의 공개 원격 연수에 참여하면서 비고츠키가 말한 발달 과정 중 ‘숙달’과 ‘반복훈련’의 차이에 대해 배운 것이 떠오른다. 반복훈련은 의식하지 않고도 수행하는 것으로 아동은 반복훈련보다 ‘숙달’이 되도록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

숙달은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의식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교사를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연수도 반복훈련보다 숙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배우는 이 플랫폼과 기술이 과연 수업 속 피드백을 이뤄내는데 얼마나 유의미한지,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유의미한지를 의식하고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을 배우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연수가 이뤄질 것이다. ㉠



## 코로나19로 달라진 유치원의 일상

#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고 행복할까요?

글. 박현애 소명유치원 선생님

코로나19는 유아들의 유치원 생활도 많이 바꾸어놓았다. 온종일 마스크를 쓴 채 교사는 물론 친구들과도 거리 두기를 하며 지낸다. 또 교사가 학부모와 직접 만나 소통할 기회도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전과는 달라진 유치원 생활. 교사는 어떻게 학습을 꾸려 가면 좋을까?

### 거리두기도 지키고 배움도 있는 개별놀이 가방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는 지켜야 하고, 유아들은 놀이하며 배우는 유능한 존재인데 놀이를 안 할 수도 없고... 고심 끝에 개별적으로 놀이하고,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놀이 뷔페다. 먼저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앉아서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 유아들에게 개별놀이 가방을 나눠준다. 그리고 유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놀잇감을 골라 개별놀이 가방에 담은 후, 자신의 자리에서 가져와 놀이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놀잇감을 같은 종류로 여러 세트를 만들거나 비구조화된 놀잇감(예: 종이컵, 빨래집게 등)을 풍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놀잇감이 부족하면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놀잇감을 서로 사용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비구조화된 놀잇감은 정해진 놀이방법이 없으므로 유아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놀이방법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간다. 실제로 우리 반(만 3세)에서 빨래집게를 이용한 놀이를 살펴보니 처음에는 단조로운 놀이를 이어가다가 점차 다양한 놀이로 발전했다.



빨래집게 낚시 놀이.



낚시대에 걸린 물고기 떼.



빨래집게로 구성된 공룡.

### 그림책은 최고의 수업 도구

확진자 수가 한참 늘었던 여름,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학부모와 유아들에게 신호등 놀이 평가(PMI 기법)로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때 학부모와 유아들로부터 가장 반응이 좋았던 수업은 교사의 목소리로 녹음한 동화와 그 동화를 연계한 활동이다. 학부모는 유아들

이 동화 자체도 재미있어 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워했다고 한다. 또 동화를 연계한 활동(예를 들면 ‘조각 이불’이라는 동화를 듣고 나서 다양한 색 종이를 오려 자신만의 조각 이불을 만들어 본 후, 자신의 조각 이불에 이름을 지어보기)을 하니 유익했다고 한다. 이런 연계 활동으로 동화 외에 동시, 동요, 명화를 활용한 활동도 원격 수업 활동으로 제공했다.

### ‘상담 이브’, 교사도 긴장, 학부모도 긴장하는 날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유치원도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해오던 상담을 대면상담으로 하기보다 비대면 상담(전화상담, 줌 상담, 화상 상담 등)으로 진행한다. 비록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상담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상담’이라는 말만 들어도 긴장감이 먼저 앞선다. 교사는 상담 때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유아가 잘하고 있는 부분, 도와줘야 할 부분을 파악해 학부모에게 어떤 말로, 어느 선까지 전달할 것인지 고민한다. 긴장되긴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혹시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상담에 앞서 무거운 마음이 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담의 공포를 덜기 위한 방법으로 ‘상담이브카드’와 ‘사진 속 숨은 비밀을 찾아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상담이브카드

먼저 ‘상담이브카드’를 활용해 보자. 크리스마スイ브에는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전날 더 축제처럼 지낸다. 그래서 상담 전날 학부모도 교사도 학부모와 통화할 날을 떠올리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고자 ‘상담 이브’라는 말을 적어보았다. ‘상담 이브 카드’는 학부모가 상담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사가 상담 전날 학부모에게 보내는 작은 카드다. 카드의 안에는 “OO가 이렇게 멋지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님 덕분입니다. 학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때 뵈어요!” 등의 글귀를 적어 교사가 학부모의 노고에 감사하고, 내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약력 박현애

• 現 소명유치원 교사  
• 前 사람과 교육연구소  
‘유치원 행복교실 1기’

#### 2) 사진 속 숨은 비밀을 찾아라!

‘사진 속 숨은 비밀을 찾아라!’라는 상담 때 활용할 사진으로 유아가 놀이하는 장면 중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은 후, 포토 카드로 만들어서 학부모에게 선물한다. 이때 학부모가 먼저 사진 속의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후 교사가 알고 있는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놀이 순간을 포착한 사진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는 담임교사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신뢰감을 더 쌓이게 한다. 또한 상담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담 시작 초반에 활용하면 좋다. 또 유아의 놀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①

# 무엇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비대면 스쿨 원격수업 패키지

글. 장은은 티처몰사업부 책임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격수업, 이 새로운 수업환경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수개월이 흐른 지금, 원격수업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실 상황에 맞춰 준비하려면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선생님들의 장바구니, 티처몰'이 준비했다. 각각 다른 교실환경과 수업 방향에 맞춰 원격수업에 필요한 케이스별 패키지를 다양하게 준비한 것. 우리 교실에 필요한 패키지를 지금 확인해 보자.

## 교실에 모니터가 몇 개 있나요?

case1. 두 개 있어요! 모니터 빼고 구성해주세요.



웹캠+타블렛+마이크+usb허브+usb컨버터+조명



웹캠+타블렛+거치대+헤드셋+usb허브+usb컨버터+조명



스피커+타블렛+마이크+조명+usb컨버터+USB허브

case2. 한 개 있어요! 모니터 빼고 구성해주세요.



웹캠+타블렛+거치대+USB허브+조명+마이크



웹캠+타블렛+거치대+조명+usb허브+마이크



스피커+타블렛+USB허브+마이크&스탠드

case3. 모니터를 추가해서 듀얼로 사용하고 싶어요.



모니터+웹캠+마이크+usb허브+조명



모니터+웹캠+헤드셋+마이크+usb허브+조명

노트북,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고 싶은가요?



헤드셋+웹캠+타블렛+삼각대+마이크  
+usb허브+usb컨버터+조명



삼각대&마이크+타블렛류+조명+마이크

저학년 교실에서 사용 예정인가요?



마이크+웹캠+실물화상기+조명



[필요한 장비만 쓱쓱 골라~ 우리 학교 맞춤패키지 만들기]

웹캠, 마이크, 타블렛, 모니터, 촬영 장비, 실물화상기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여러 페이지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나만의 패키지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중간계산대를 이용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삭제해 예산에 맞춰 구성할 수 있고, 최종 선택한 상품들은 한 번에 장비구니로 이동하거나 주문할 수 있으며, 패키지 할인도 가능해 결제 전 티처몰 고객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다. ㉮

※ 위 구성은 티처몰 단독 패키지이며, 구입 문의는 티처몰 홈페이지(shop.teacerville.co.kr) 또는 고객센터(1544-7783 내선2)로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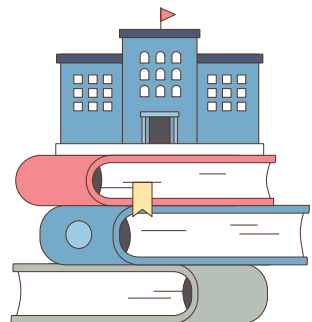


## '행복한 학교', 학교자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자율·변화·공동체'는 학교자치의 키워드

글. 김현정 티처빌사업부 선임

학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교육 민주주의의 핵심인 '학교자치'. 몇 해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지만 근래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주체적 교육 활동을 위해 제약이 되는 지침을 제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학교자치'가 생경했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많은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치의 봄은 아직 꽃 피우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학교자치가 중요하다고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일찌감치 학교자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연구하고 전파한 여러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작은 지방 학교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치의 꿈을 꾸준히 펼쳐온 선생님이 있다는 말에 <티처빌이 간다>가 한걸음에 달려가 보았다.



### Q. 오늘날 학교에 '학교자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일'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행복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재미가 있으려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재현의 삶만 살아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학교자치가 학교에 필요한 궁극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FUN'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았는데, 'FUN'이라는 단어의 이니셜로 그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F는 'Free'인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해요. 직장에서도 자율성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행복할 수 없겠죠.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대로 할 때보다 학생 맞춤형으로 현장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디자인할 수 있는 자율성이 발휘될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 U는 'Unfamiliar'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미와 행복을 느끼긴 더 어려울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N은 'Network'예요. "We are better than me"라고 하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것만큼 진정한 행복도 없는 것 같아요.

이 3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학교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Free', 즉 '자율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학교자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Network'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한 자치와 협치가 활발히 일어날 때 'Unfamiliar'에 해당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해보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 재미와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교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약력 임재일

- 現 용인 서원초등학교 선생님
- 2019 교육부 교육자치 학교자치 콘퍼런스 '학교자치의 개념 및 쟁점' 발표
- 저서 『교사학습공동체』(공저, 출겨운학교, 2017), 『학교자치』(공저, 출겨운학교, 2018), 『학교자치 2』(공저, 출겨운학교, 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공저, 맘에드림, 2019),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공저, 테크빌교육, 2020)
-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소장

### Q. 학교자치 실현에 장벽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학교자치가 실현되려면 학교 안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치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즉 스스로 자신의 자치역량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학교 안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어요.

다음으로 문화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죠. 앞으로는 누구나 이런 문화를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해요. 시스템이 없이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개인적인 역량신장과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역량을 발휘하면 그 힘이 더욱 더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선 시작해보고 한 학기 혹은 일년이 지나 그런 문화가 자연스러워지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번에 되지 않으니깐 더욱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행복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것도 한순간일 거예요. 강요하면 누구나 저항감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저 열심히 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정도라면 이질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도 이 문화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부분이죠.

### Q. 그런데도 학교자치가 잘 실현된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가 그런가요?

특정 학교를 지칭하기엔 무리가 있네요. 학교자치가 잘 실현되는 학교의 모습과 이를 위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볼게요.

학교자치가 잘 실현되려면 먼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권한을 내려놓고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안전한 공간이 없다면, 자치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잘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로십 연습이 필요해요. 리더십에 관한 연수는 많지만, 팔로십에 관한 연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과 팔로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결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민주주의이죠. 다양한 주체가 의사소통하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는 조직, 경청과 공감이가 잘되는 조직, 그런 이념과 토대가 된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학교가 학교자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 학교라 할 수 있어요.

미래교육의 첫 걸음,  
학교자치





학교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Q.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학교자치를 꿈꾸는 교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 해본 것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낯선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설렘과 호기심 그 자체만으로도 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학생의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상도 매일 변하면서 제 앞에 앉아 있어요. 학생의 학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학생을 알고자 배우고자 할 때 교사의 전문성이 완성되고 내가 가르치는 수업이 재현의 삶이 아니라 자치 그러니까 자율성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더 잘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학교자치든 수업이든 이와 관련해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내가 학생을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사라면 이미 그 학교는 자치의 봄을 만들어가는 중일 것 같은데요?

학교자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임재일 선생님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다. 뻘한 삶이 아니라 ‘FUN’한 삶을 실천하며 살고 있기 때문일까? 학교자치를 주제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만나고 나서야 알았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게 된 이야기는 ‘행복한 삶’과 관련된 이야기며 그 안에 학교자치도 있었다는 것을. 교문 앞에 울긋불긋 예쁘게 물든 단풍잎 사이를 걷다가 문득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따라 유독 단풍이 예쁘게 느껴졌던 이유는 행복을 인터뷰한 후의 여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①

**FUN**

F는 ‘Free’  
U는 ‘Unfamiliar’  
N은 ‘Network’





# "선생님, 작가의 꿈을 이루어 보세요"

## 초등교사 출신 작가가 들려주는 책 발간 노하우

글. 이은경 작가, 강연자

안녕하세요, 작가 이은경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로 15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사직한 후 현재는 전업으로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첫 책을 출간한 이후, 최근까지 모두 9권의 책을 출간했고(공저 포함), 내년 중 5권의 책이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또 매달 서너 번 정도는 저자 강연회에 초대되어 독자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올여름부터는 티처빌연수원의 현직 교사 책 쓰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책을 쓰고 싶은 선생님들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선생님들의 책이 내년 중 출간될 예정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현직에 계신 많은 선생님께서 책 출간을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막막하실 거예요(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제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꾸준히 쓰고 출간하면서 제가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을 작가를 꿈꾸는 선생님들께 모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 - 누구를 위한 책을 쓸까, 대상 독자 선정하기

누구나 어떤 분야의 책이든 쓸 수 있지만, 모두의 글이 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글을 써서 투고했지만, 출간 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한 선생님도 상당히 많거든요. 출판사에서 출간을 제안할 만한 수준의 원고를 쓰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라는 무기를 살릴 분야, 즉 대상 독자를 영리하게 선정해야 해요. 바로 '누구를 위한 책인가'를 규정짓는 단계예요.

현직 교사의 책을 기다리는 1등 대상 독자는 학부모이고요, 어린이/청소년



### 약력 이은경

- 現 작가, 강연가, 부모교육전문가
- 現 슬로우캠퍼스 대표(교육콘텐츠 개발업체)
- 前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총 경력 15년)
- 저서 『초등 매일 공부의 힘』(2019), 『초등 매일 습관의 힘』(2020), 『초등 완성 매일 영어 책임기 습관』(2020) 등 9권

등의 학생, 현직 교사도 대상 독자가 될 수 있어요. 현직 교사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분야       | 대상 독자    | 구분       | 세부 주제              |
|----------|----------|----------|--------------------|
| 자녀교육서    | 학부모      | 유치/초등/중등 | 독서법, 대화법, 입학 준비법 등 |
| 공부법, 학습법 | 학생       | 초등/중등    | 공책 정리법, 과목별 공부법 등  |
| 교수법      | 현직 교사    | 유치/초등/중등 | 학급경영, 진로지도, 교수법 등  |
| 문학       | 어린이, 청소년 | 유치       | 그림책, 동화책, 소설책 등    |

### 콘텐츠 선정 - 현직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교실에서 찾기

교사는 학교,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매일 학생을 만난다는 점에서 책 쓰기에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교실에서 매일 하는 수업,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학급운영, 업무 처리 등이 그대로 책의 콘텐츠가 될 수 있거든요. 서점에 가보면 현직 교사가 집필한 책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안타깝게도 선생님 자신은 본인이 가진 콘텐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첫 책은 초등 1학년 답임을 했던 경험과 연년생 두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본 경험을 담은 초등입학 준비서였는데요, 제 경험과 정보를 글로 정리한 것만으로도 교실 상황을 알지 못해 막막하고 불안했던 예비 학부모에게 충분히 유익하고 사랑받는 책이 되었습니다. 께어야 보배라지만, 구슬 서 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서 말이 훨씬 넘는 구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 원고 작성 - 출판사가 선호하는 기획원고 작성하기

내 책의 대상 독자와 주제를 정했다면 기획서, 목차, 표본 원고를 작성해

1. 2017년, 자녀교육서.
2. 2018년, 여행 에세이.
3. 2019년, 자녀교육서.
4. 2020년, 자녀교육서.





야 하고요, 이것들이 차례로 담긴 문서를 ‘기획원고’라고 합니다. 먼저 기획서에는 책의 제목, 대상 독자, 기획 의도, 저자 소개, 홍보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책의 목차를 작성해야 해요. 목차는 책 전체의 뼈대가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정보, 경험, 감정, 의견 등이 논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해요. 목차 작성이 막막하다면 가지고 있는 책을 펼쳐 그 책의 목차를 보면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비슷하게 배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더해야 할 것이 목차를 바탕으로 작성한 원고예요. 책 속 한 편의 글을 ‘꼭지’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5~10개 정도의 꼭지를 실제 책을 쓰듯 써서 첨부하면 됩니다.

목차와 원고에는 실제 교실에서 겪었던 학생들과의 경험, 학부모 상담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사실, 교직 경력이 쌓이며 갖게 된 나만의 노하우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갈수록 좋아요. 현직 교사의 원고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함이거든요.

### 출간 진행 - 내 책의 독자를 만나기 위한 설레는 과정

아무리 좋은 글도 책으로 엮어져야 하고, 읽어줄 독자를 만나야 합니다. 만 들어지고 읽혔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원고를 책으로 만들어줄 출판사와 인연을 맺어야 하는데요, 정성스레 작성한 기획원고를 출판사 이메일로 투고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저는 첫 책의 원고를 시중 출판사 150군데 정도 투고했고, 그중 출간을 제안했던 유일한 출판사와 계약했습니다.)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 노하우, 교육철학이 녹아 있는 원고는 시중 출판사들의 환영을 받는 편이에요.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 독자들이 있고, 여러 저자 중 현직 교사는 학부모들

5. EBS 미래 교육 플러스  
(2020년 8월).

6. 학부모 대상 강연(2020년).

7. 국가자식재산위원회  
토크콘서트.

8. 대구 달성도서관 강연  
(2020년 8월).

9. 교사 책 쓰기 과정 1기 모임  
(2020년 7, 8월).

나는 마흔일곱이 되어서야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지만 어떤 학위가  
있어야 하거나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았다.  
물론 아무도 내게 그 집단에  
가입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애비게일 토머스

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책으로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원고 투고를 통해 출간 계약에 성공하고 나면 전체 원고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한글 문서 10포인트 기준, 100쪽 정도면 책 한 권 분량이 됩니다. 최종 원고 작성 이후에는 출판사의 일정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교정, 디자인,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내 책이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두근대는 순간이죠.

### 책을 쓰고 싶다는 꿈 -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교사라면 누구나 학교에 신규 발령을 받고 아무것도 몰라 헤매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면서 하나씩 배우고 성장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평생 교직에만 있다가 책을 쓰고 작가가 되는 새로운 도전을 해 보려니 그때만큼의 두려움과 막막함이 들겠지만, 신규 시절의 설렘을 떠올려 보세요. 서툴면 어떻가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교직에서의 저는 언제나 '꼴찌 교사'였어요. 연년생 아들들을 키우느라 특하면 육아 휴직을 해야 했고요, 몸과 마음이 아파 질병 휴직도 했으며 혼한 부장 경력 한번 없이 성과급은 언제나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육아독립군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며 칼퇴근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리기 바빴죠. 그런 버거운 일상 속에서도 책을 쓰고 싶다는 꿈을 잊지 않았고, 결국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육아와 교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 책을 엮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삶을 한 번이라도 꿈꾼 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혼자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티처빌연수원의 문을 두드리세요. 티처빌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사 책 쓰기 과정에 참여해 저와 함께 이뤄졌던 작가의 꿈을 이루어 보세요. 선생님들의 책 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⑦





# 미래 교육에서 교육자가 갖춰야 할 역량

글. 윤경동 강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교육의 모습도 작년 말부터 대폭 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듯하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교육이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다. 미래 사회에서는 현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 인간상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글쓰이는 미래 사회를 조 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에듀테크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교육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 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급변하는 사회, 미래 사회 모습 전망

인공지능(AI) 컴퓨터 알파고의 출현으로 인간만의 고유영역이라 생각했던 창의성, 학습 능력마저도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앞지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1980년대 PC의 등장이 인쇄, DB, 교육 등 정보처리 분야에서 혁명을 가져왔듯, 200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가 한 동네처럼 지구화 사회가 되었듯이 미래의 과학·문화·교육·통신·교통·기술·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할 것이다.

## 에듀테크 시대에 교육자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역량

부모의 소득 격차는 디지털 교육 격차로 나타나므로 미래 교육자들은 교육 격차의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고, 실제로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선진학교에서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부터 코딩교육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 사회에서는 아마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빅 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이 주도하는 세상일 것이다. 모든 교육기관은 통찰력을 발휘해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목



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며 스스로 변화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통섭 능력, 융합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협동 능력,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내고 계발해내는 교육자의 역량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새롭게 요구하는 역량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미래교육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

- 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격차, 소득 격차 해소자로서의 역량
- 나. 교과 지식 전달자보다는 안내자, 상담자로서의 역량
- 다. 심리학적 기법, 아동(학생)발달 전문가로서의 역량
- 라. 진로, 진학 컨설턴트로서의 역량
- 마. 사이버 시대에 증가하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적인 문제해결 역량
- 바. 경쟁보다는 협동, 관계 중심, 지역사회,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

### 제자들에게 영원히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자

앨빈 토플러는 지금의 교육을 “20세기 교사들이 19세기 교실에서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글쓴이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이에 글쓴이는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교육계의 원로로서 어느 사회에도 변함없이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 약력 윤경동

- 現 서울강동초등학교 교장
- 現 전국어린이글짓기지도회 부회장
- 前 서울 및 전국초등교감회 회장
- 前 서울시과학교육연구회 회장
- 前 서울시교육청 연구교사 평가위원
-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교육도서 집필진

- 가. 창의 융합 능력: 창의력, 통섭, 융합 능력, 표현 능력, 예술 감상 능력
- 나. 의사소통 능력: 국어, 외국어 능력, 다문화 사회 적응 능력, 정보와 처리 능력
- 다. 협동 상호작용 능력: 인간, 자연, 물질,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연과학 탐구 능력
- 라. 평생학습 능력: 효율적인 독서 능력, 토론 능력, 논술 능력, 인문학적 상상력
- 마. 건강 등 자기관리 능력: 좋은 습관, 운동, 경제 관념, 시간관리, 건강관리 능력 등
- 바. 적성 및 자기 계발 능력: 진로교육, 특기, 적성 계발, 관심, 흥미, 잠재 능력 개발 등
- 사. 인간으로서 가치관 정립 능력: 도덕, 철학, 올바른 가치관 정립 능력, 민주시민 교육
- 아. 탁월한 선택 능력: 진로 및 직업 선택, 경제적 대안 분석 및 합리적인 선택 능력

초·중·고를 비롯해 모든 학교의 교육자들은 미래 에듀테크 시대를 정확히 내다보고, 11개 교과교육과 지식 정보화 교육도 해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해 꼭 필요한 위의 능력을 고루 길러주길 바란다.

교육자는 제자가 살아갈 새로운 환경이 어떤 곳인지 예상해보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런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면서 교육에 임해야 할 것이다. ①

에듀인뉴스 (2020. 09. 23)

## 테크빌교육(주),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선정



에듀테크 전문기업 테크빌교육(주)이 '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사업'에 참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Best HRD'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3년간 인증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우수기관(Best HRD)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테크빌교육은 이번 심사에서 인사계획, HRD 인프라 구축과 투자 등

회사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에 있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및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인증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 하략)

지성배 기자

전자신문 (2020. 11. 01)

## 교사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탈바꿈한 쌤동네, 어때?



교사가 주도하는 유료 교육 콘텐츠 서비스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은 이용자 자발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 여부다.

에듀테크 전문기업 테크빌교육은 지난 9월 교사들의 무료 콘텐츠 공유와 커뮤니티 장 역할을 해 왔던 '쌤동네'를 유료 콘텐츠 플랫폼으로 개편을 시도했다.

쌤동네는 그동안 약 1만여 건에 이르는 무료 교육 콘텐츠를 나눔 형태로 공유하다 최근 커뮤니티에 '유료

콘텐츠'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교사가 크리에이터가 돼 자신이 만든 콘텐츠 가격을 직접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직접 올리는 콘텐츠 형태는 프레젠테이션, 문서, 이미지, 음성 및 동영상까지 제한이 없다. 주제도 교과, 학습,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부터 취미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운로드 콘텐츠 가격은 100원부터 몇 만원대까지 결정할 수 있다. 쌤동네 개편 이후 약 50일간 서비스 초반 반응은 긍정적이다. 리뉴얼 서비스 이후 이용자는 전년 대비 40%, 페이지뷰 37% 증가했다. (기사 하략)

김명희 기자

에듀동아 (2020. 10. 23)

## 테크빌교육(주), '아이엠에듀네트웍스'와 인도네시아 교사 교육사업을 위한 MOU 체결



테크빌교육은 “NHN에듀의 인도네시아 합작 법인 ‘아이엠에듀네트웍스’와 인도네시아 교사교육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와 김석 아이엠에듀네트웍스 대표가 참석했다. NHN에듀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교육 기업 ‘만화끼다’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아이엠에듀네트웍스’를 설립,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학교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출시를 앞두고 있다. 테크빌교육은 이날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출시 예정인 ‘아이엠스쿨’을 통해 현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교사 연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사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한 기획과 마케팅 영역에서 아이엠에듀네트웍스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하략)

김수진 기자

뉴스1 (2020. 11. 10)

## 테크빌교육, ISP 수립 사업 수주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앞장”



에듀테크기업 테크빌교육은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생태계 플랫폼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여러 사이트를 각각 로그인할 필요 없이 계정 하나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싱글사인온(SSO) 시스템이 핵심요소 중 하나다. (기사 중략) 테크빌교육은 ‘에듀테크에 대한 기술력’, ‘티처빌연수원 운영’ 등

20년 동안 공교육 시장에서의 서비스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아 ISP 수립 사업 수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테크빌교육은 앞으로 K-에듀 통합플랫폼을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 같은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플랫폼을 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플랫폼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형세 테크빌교육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앞으로 여러 분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과 교육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현기 기자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긴다!

## 교사를 위한 북러닝 서비스, 쌤북(SSAM-BOOK)

글. 이은성 티처빌사업부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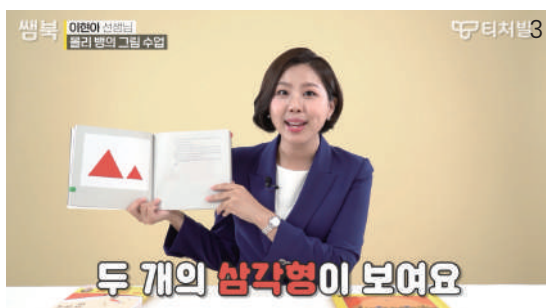
티처빌이 2020년 11월, 선생님 대상의 북러닝(Book-Learning)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름하여 쌤북(SSAM-BOOK). 한 권의 책을 핵심만 쏙쏙, 짧은 시간 안에 마주하며 즐거움과 유익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선생님들의 새로운 취미생활을 열 '쌤북', 지금 만나보자.

### 독서,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요?

가깝고도 먼 그대, 독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온 작품 읽기』와 같은 독서 교과를 도입해 독서 교육을 장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우리의 독서율은 미진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9년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성인의 연간 독서량은 6.1권으로 2년 전인 2017년 조사보다 2.2권 줄었다.

### 독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흔히 '시간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책을 읽기 어려운 이유로 제일 많이 꼽힌 것은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이용'(29.1%)으로, 이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던 '시간이 없어서'(27.7%)를 밀어냈다. 대신 전자책 독서율은 16.5%로 20~30대 중심으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또 지난해 조사한 오디오북 독서율은 성인은 3.5%를 차지했다.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던 것이다. 실제 티처빌사업부 콘텐츠기획팀이 현직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2%가 전자책, 18%가 유튜브 영상으로 독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이 아닌 방법으로 독서 경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의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 수 있어서'(44.5%)이며, '이용이 편리해서'(37.9%)는 그다음을 이었다.



### 선생님만을 위한 책, 쌤북(SSAM-BOOK)

쌤북은 최근 독서 경험의 변화에 맞춰 탄생한 ‘북러닝’(Book-Learning) 서비스다. 10분 내외로 지식을 취하는 마이크로 러닝(micro-learning) 흐름에 맞춰 짧은 재생 시간을 자랑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다. 쌤북은 현직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책 1권을 20분 내로 소개하고 추천한다. 교사는 책을 낭독하고, 책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다. 가령 그림책 교육으로

유명한 서울 홍릉초등학교 이현아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 책으로 『이오덕의 글쓰기』를 소개하며, 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 쌤북이 좋은 이유 3가지

첫째, 쌤북은 유용하다. 현장 교사가 읽어본 책을 추천하기 때문이다. 쌤북에 소개된 도서를 아이들과 교실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활용할 수 있다. 추천 교사가 도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 학부모가 추천 도서를 가정 내 독서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다.

둘째, 쌤북은 믿을 만하다. 쌤북에 참여한 교사들은 독서에 일가견이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목록을 선정하고 감수한 수석 교사, 독서 교육 관련 단행본을 출간한 초·중·고 교사, 2년 이상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해온 중등 교사가 그들이다. 참여한 선생님 모두 책 읽기를 사랑하며, 다른 교사에게 책을 추천할 만큼의 내공을 갖추었다.

셋째, 쌤북은 ‘전학공’(전문적 학습공동체)과 ‘교학공’(교원학습공동체) 독서 모임에 도움이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전학공/교학공 활동을 연수 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쌤북은 전학공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싶은데 도서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에게 도서를 추천하고,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은 방법을 공유한다.

쌤북(SSAM-BOOK)



1. 정유진 선생님 교실 심리학.
2. 김재우 선생님 논어(論語).
3. 이현아 선생님 물리 뱅의 그림 수업.

### 선생님에게 가까운 책, 쌤북

쌤북은 책과 교사의 거리를 좁힌다. 교사의 독서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에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 여타 북러닝 플랫폼, 도서 추천 영상과 차별화되는 이유다. 쌤북은 교사가 책 읽기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최초 ‘교사 맞춤 북러닝 서비스’다. ⑦

##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기수 | 학점  | 연수 시작일  | 연수 종료일  | 출석고사    | 이수증 발급  |
|----|-----|---------|---------|---------|---------|
| 1기 | 4학점 | 12월 23일 | 02월 02일 | 01월 30일 | 02월 05일 |
|    | 3학점 | 12월 16일 | 01월 19일 |         | 01월 20일 |
|    | 3학점 | 12월 30일 | 02월 02일 |         | 02월 03일 |
|    | 3학점 | 01월 13일 | 02월 16일 |         | 02월 17일 |
|    | 2학점 | 12월 23일 | 01월 19일 |         | 01월 20일 |
|    | 2학점 | 01월 06일 | 02월 02일 |         | 02월 03일 |
|    | 2학점 | 01월 20일 | 02월 16일 |         | 02월 17일 |
|    | 1학점 | 12월 23일 | 01월 12일 |         | 01월 13일 |
|    | 1학점 | 01월 06일 | 01월 26일 |         | 01월 27일 |
|    | 1학점 | 01월 20일 | 02월 09일 |         | 02월 10일 |
| 2기 | 4학점 | 03월 17일 | 04월 27일 | 04월 24일 | 04월 30일 |
|    | 3학점 | 01월 27일 | 02월 23일 |         | 02월 24일 |
|    | 3학점 | 02월 17일 | 03월 23일 |         | 03월 24일 |
|    | 3학점 | 03월 03일 | 04월 06일 |         | 04월 07일 |
|    | 3학점 | 03월 17일 | 04월 20일 |         | 04월 21일 |
|    | 2학점 | 02월 03일 | 02월 24일 |         | 02월 25일 |
|    | 2학점 | 02월 17일 | 03월 16일 |         | 03월 17일 |
|    | 2학점 | 03월 03일 | 03월 30일 |         | 03월 31일 |
|    | 2학점 | 03월 17일 | 04월 13일 |         | 04월 14일 |
|    | 1학점 | 02월 03일 | 02월 23일 |         | 02월 24일 |
|    | 1학점 | 02월 17일 | 03월 09일 |         | 03월 10일 |
|    | 1학점 | 03월 03일 | 03월 23일 |         | 03월 24일 |
|    | 1학점 | 03월 17일 | 04월 06일 |         | 04월 07일 |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 모바일이 달라졌어요!

속이 뽕- 뽕릴 편리함으로 더 강력해진 모바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은 티처빌!



## 새로워진 내 손안의 연수원 어디서나 **모바일**은 티처빌!

앱 하나면 끝!  
편리한

**티처빌 APP**

유튜브처럼 쉽게  
바로바로~

**영상 중심**

ONLY

유일무이  
오직 티처빌에서만!

**차시 미리보기**

접속 없이 학습  
현황과 혜택 확인

**티처빌 위젯**

국내 연수원 중  
모바일연수

**최다보유**

## 선생님만을 위한 책! 모바일에서 즐기는 **북러닝 서비스**

10분 내외의  
마이크로  
**북러닝서비스**

도서로 검증된  
현직 교사가 직접  
**추천하는 책**

ONLY

전학공 & 교학공  
독서모임  
**고민 해결!**

도서 내용과  
추천 선생님의  
**도서 활용  
방법**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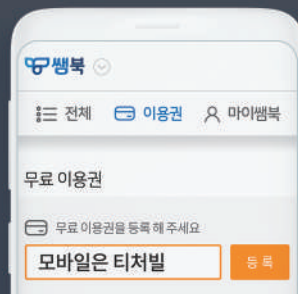
☞ **쌤북**



## 티처빌 모바일 개편기념 **쌤북 1개월 무료이용권 혜택!**

참여방법

- STEP 1 쌤북 로그인하기
- STEP 2 무료이용권에 “모바일은 티처빌” 등록하면 끝!



검색창에서 **티처빌**을 입력해 보세요

[www.teacherville.co.kr](http://www.teacherville.co.kr)



## · 2020년 티처빌 신규과정 ·

뇌과학으로 학교를 다시 보다!

2학점

### 정재승의 스쿨 브레인



정재승

#### 강의 특징

- 학생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
- 창의성, 성취동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이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메타인지의 개념과 향상 방법 제시

#### 강의 개요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다. 가끔, 아니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낮은 행동들, 더 좋은 수업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 탓이야!' 하며 자책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보다 안타까운 것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닌 '뇌 탓'이기 때문이다.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효율적으로 배우려는 방법도 모두 뇌에 있다. 이 모든 원인인 뇌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이 티처빌에 찾아왔다. 다양한 실험과 연구 심지어 정재승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제 학생을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원격수업! 이제는 블렌디드 수업에 도전한다!

1학점

### 블렌디드 수업의 첫걸음! ZOOM-IN



이슬기

#### 강의 특징

- 업데이트된 ZOOM의 기능을 몽땅 활용한 상상 초월 수업 아이디어 공개
- 간단한 기능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수업 사례 공유
- 블렌디드 러닝 수업과 교과 구성방법 및 프로젝트 블렌디드 러닝 사례 전달

#### 강의 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생활화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ZOOM의 활용법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지금, 이제는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기능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법이다. ZOOM을 통한 원격수업을 넘어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의 달인이 되어보자.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슬기샘의 수업 아이디어.

ZOOM의 기능을 몽땅 활용한 상상 초월 수업 사례가 여기 있다.



ZOOM, 어디까지 해봤니?  
우린 ZOOM으로 놀이까지 한다!

## 8시간 온라인 교실에서 노는 방법! 모두 다 알려ZOOM



허승환 김진영 나승빈 김세용 오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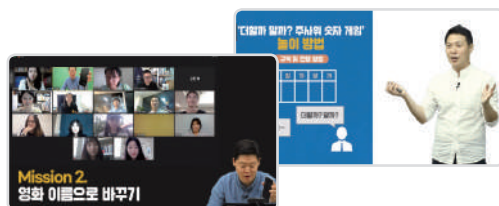
### 강의 특징

- 실제 놀이 장면이 제시되며 예능처럼 즐기며 볼 수 있는 강의
- 쉽고 다양한 놀이를 단번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전달
- 놀이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트 소개

### 강의 개요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와 같은 단어들이 일상이 된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친구들과 고립되며 '놀이'가 부족해진 것이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승패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활동이다.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과 침울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잠재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간단한 놀이 활동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은 교사를 영상에만 존재하는 교사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교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관계기술

## 2학점 관계기술, 교실 소통전문가 만들기



김현섭 김성경 오정화

### 강의 특징

- 이론과 실습의 완벽한 조화
- 5가지 욕구를 바탕으로 한 관계기술 향상 방법 제시
-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

### 강의 개요

학급생활·학교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관계에서 오는 문제. 특히 학생 간 협력해 공동으로 학습과제를 해결할 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원만하게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 관계기술은 공동 학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도 관계기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본 연수는 교사들이 학급운영 또는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술의 의미와 개념을 제시하고, 칭찬·경청·공감·배려·감사 등 실제적인 관계기술 향상 방법을 소개한다.



# “내면과 외면의 멋을 갖춘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교육계의 패션모델 이원준 가정 선생님

글. 이원준 영남중학교 선생님

### ☆ 어딜가도 패션모델 ☆

SNS를 통해 그를 처음 보았을 때, 패션 종사자이거나 광고 기획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유행을 좇아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딱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알고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도 가정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적잖이 놀랐다. 거기다 4년째 교사 책 모임을 운영하며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알면 알수록 알고 싶어지는 이원준 선생님을 지금 만나보자.

#### 평범한 외모와 성격이지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중학생 시절부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평범한 외모와 성격으로 별다른 특색이 없었던 나는 평범한 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 시절 옷 잘 입는 친구들을 동경하며 브랜드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돈을 모아 하나둘 옷을 사면서 자연스레 패션에 관심이 많아졌다. 대학생 시절도 특출나게 옷을 잘 입지는 못했지만, 눈에 띄는 옷차림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임용에 붙고, 교사가 되고 나니 이제는 그냥 옷을 입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호감을 주며 전문성이 느껴지는 복장을 고민했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옷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약력 이원준

• 現 영남중학교 가정교사



1~5. 계절에 맞게, 유행을 선도하는 이원준 선생님의 세련된 패션.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단정하고 전문적이면서도 편하고 재미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비스타일,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 밀리터리 스타일을 선호한다. 보통 상의는 셔츠, 재킷, 타이로 단정하게 하고, 하의는 진, 치노팬츠, 퍼티그랜츠 같이 편한 옷을 선호한다. 여기에 클래식한 로퍼나 운동화를 즐겨 신는다.

### 내면만큼 외면도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

사람들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나는 겉모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게 마련이다.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다행히 나의 패션과 스타일에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덕분에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재미있다는 반응을 자주 보인다. 특히 수업이나 답임으로서 만나는 학생들은 나의 스타일을 평가, 지적 그리고 조언도 하면서 나와 일상적인 교감을 하곤 한다(“옷이 너무 이상하다, 넥타이가 범상치 않다, 아빠보다 더 아빠 같다, 선생님도 이 브랜드 좋아해요? 선생님 멋져요.” 등). 덕분에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수월함을 느꼈고,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6-8.  
책 읽는 교사 모임 '서영책'.

### 교사책 모임 '서영책'으로 내면의 성장도 추구

외면의 중요성과 특징들만 많이 늘어놓았지만, 내면적인 성장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면의 성장을 위해 취미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교사 책 모임을 만들어서 4년째 운영하고 있다.(그 외에도 서울 남부 수업 평가 나눔단 분과 리더, 서울 남부 독서지원단 등등 교사 전문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년 차 신규교사 시절,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고 비슷한 또래의 교사 책 모임을 만들고 싶어 Daum 한마음 카페를 통해서 서영책(서울에서 영화 보고 책 봐요)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현재 App 소모임과 SNS(INSTA@seoyeongchaek)를 통해 4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교사 친목 책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진은 총 10명으로 매년 함께 책을 선정하고 매주 오프라인 책 모임을 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로 격주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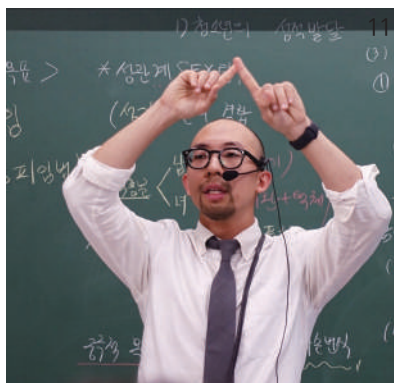
서영책 Instagram



라인 모임으로 진행 중). 책은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고 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책도 작가 혹은 화자와 만남이지만,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는 더 깊은 교감과 사고의 발전이 일어난다.

### 패션과 책도 '가정 선생님 이원준'으로서의 한 부분

패션과 책 모두 가정교사라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 가정 교과는 단순히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실습 교과가 아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족관계, 청소년 발달, 의식주, 소비생활, 자기관리, 일과 가정 양립 등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과다. 좋은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외면과 내면 모두를 멋지게 가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진정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취미와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 놓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게 첫 번째는 가정 교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내 생활 속에서 주체가 되는 모습들을 통해 가정 교과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⑦



9~12. 가정교과 수업 중인 이원준 선생님.

# 'ON'일 때 체육교사, 'OFF'일 때 등산마니아

## 코로나 시대 '확찐자' 탈출을 위한 등산 노하우

글. 황준필 링컨중고등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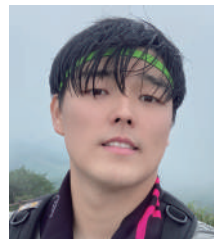
요즘 tvN의 <온앤오프>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일할 때의 나(ON)와 쉴 때의 나(OFF)를 분리해서 일상을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전제는 ON과 OFF일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만나볼 황준필 선생님의 온앤오프는 '운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기에 행복하지만, 그에게도 운동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데... 운동으로 무장한 그의 온앤오프는 과연 어떻게 지금 만나보자.

### 유니폼 입고 공을 차던 축구부가 멋져서 시작한 축구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하면서 충북 영동군에 있는 영동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됐다. 전학 간 첫날, 운동장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고 공을 차던 축구부 아이들의 멋진 모습에 반해 축구라는 운동을 시작했다. 남들이 공부할 때 축구를 하며 초등 시절을 보내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축구부를 관두게 됐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었고, 학창시절을 지나 교사가 된 지금도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축구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 취득 및 활동(충북)
-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 취득 및 활동(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축구클럽(FC HDD) 활동 및 선수로 각종 대회 참가
-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감독으로 참가 및 입상

대학에서 체육교육과로 진학하면서 전공 수업을 통해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운동 종목을 배우게 됐다. 그중 흥미가 컸던 축구·탁구·농구·배구·배드민턴·정구·수영 등은 생활체육과 클럽을 통해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교사생활을 하면



### 약력 황준필

- 現 링컨중고등학교 체육교사
- 現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 취득 및 활동(학교스포츠클럽)
- 現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 취득 및 활동(충북)
- 現 FC HDD 풋살클럽(아마추어) 대표
- 現 굿뉴스코해외봉사단 잠비아 8기 팀장



서 학교 방학 중 진행했던 'Youth Leadership Camp'를 통해 아이들과 지리산·대둔산·덕유산·한라산 등을 오르면서 정상에 서는 짜릿함을 함께 맛보기도 했다. 그렇게 등산의 재미와 매력을 알게 되고, 어릴 적 축구부 생활과 수색대대 군생활을 통해 단련된 튼튼한 하체는 등산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됐다.

### 〈온앤오프〉가 모두 운동인 삶, 참으로 감사해

요새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온앤오프〉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다. 바쁜 일상(사회) 속의 내 모습(ON)과 휴식을 취할 때 내 모습(OFF)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를 보면서 지금의 내 삶에 감사하게 됐다. 글쓴이는 'ON'일 때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치면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등산, 국토순례, 축구대회 등을 함께하고 있고, 'OFF'일 때는 자전거 일주[서울-해남 땅끝-제주도 한 바퀴(총 770k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정상등반(4130km), 마라톤 대회 참가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여가 및 자기 계발을 하며 지냈다. 다른 이들과 달리 내 삶은 'ON'과 'OFF'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요즘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찬찬히 되돌아보니 '운동'은 내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완전한 단어였다.

### 암흑 같았던 부상 시기, 그래도 나를 일으켜준 건 운동

물론 운동이 항상 좋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11년, 2014년, 2016년 총 세 번의 무릎(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야만 했는데, 몸이 가장 큰 재산인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겪었다. 하루는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근육이 다 빠진 초라한 다리를 보면서 눈물이 절로 흘렀다. 그러면서 대인기피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심각히 고민도 했다.

그러던 중 의사로부터 다리 재활을 위해 가벼운 등산이 좋다는 이야길 듣고, 가볍게 동네 뒷산에 올랐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심장 뛰는 소리와 몸의 열기가 꺼져가던 운동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다. 짧은 동네 뒷산을 오르면서 '운동할 때가

1. 지리산.
2. 지리산 천왕봉 일출.
3. 친구들과 지리산.
4. 학생들과 대둔산 정상.



5

정말 즐겁구나, 이런 모습이 가장 나은 모습이구나'를 다시 알게 됐고, 그 후로 작은 산들을 천천히 다니기 시작했다. 등산은 다리 근육을 채워주는 재활운동의 일등공신이 됐다. 암흑과도 같았던 수술 및 재활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운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다.

### "이 더운 날씨에도 등산하러 가세요?"

이번 여름 동안 등산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다양한 운동이 일상이던 나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받게 되면서 제약 없이 꾸준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등산을 생각했다. 6월부터 주말과 휴일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등산하게 됐고, 마침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에서 제작한 등산 장려프로그램인 BAC(Blackyak Alpine Club) 100명 산 프로그램을 지인에게 소개받아 시작하게 됐다. 주변에서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무더운 여름날, "뭣 하러 등산 가냐?"며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이유는 단순히 '시원해서'였다. 산을 오르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어설프게 땀이 나면 찝찝하지만, 온몸이 땀에 젖으면 그것만큼 시원하면서 묘한 쾌감이 없다. 거기다가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물을 마시다가 머리와 몸에 살짝 뿌려주는 그 물방울들이 합쳐지면 어느 에어컨 부럽지 않은 1+1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에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 하다가 포기하고 온몸이 젖게 내버려 두면 마치 비에 취한 듯한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마주하는 탁 트인 하늘이 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만든다. 내게 있어 한여름의 산속은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하다.

### 성찰의 시간을 주는 등산의 매력

등산의 또 다른 매력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블로그를 통해 "등산은 인생과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나조차 이 문장이 오글거리면서 답살 돈다 생각했지만 등산하면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게 됐다.

산행하면서 만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과 같다. 분명 산에서의 오르막길은 힘든 길이다. 급경사, 울퉁불퉁한 돌밭,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까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넘다 보면 결국엔 정상에 도달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정상을 오르며 만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정상에서 있는 나의 가치를 더 높여 준 '도우미'라고 생각하며 나의 마음도 더 단단하게 부여잡았다.



##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

등산에는 하산할 때의 내리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끔 하산이 아닌 등산길에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는데, 힘든 순간에 찾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 같지만 대개 내려가는 만큼 결국 다시 올라가야 한다. 그럴 때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유혹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등산은 마치 인생과 비슷해 몸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며 마음 또한 단련할 수 있어서 그 어떤 운동보다 매력 있다.

## 코로나19 시기에 홈트도 좋지만, 등산은 어떨까?

코로나19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있다. 운동만 봐도 실내 운동은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실외 운동 중에서도 단체 운동이나 정적인 운동은 아직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운동은 등산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집 안에서 주로 생활했기에 많은 사람의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등산은 최고의 보약이다.

## 등산은 시작이 반이 아니라 반 그 이상이다

등산이라고 하면 히말라야와 같이 높은 산을 오를 것이라 상상하며 미리 겁을 먹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집에 가는 언덕조차 걷는 것이 힘들다며) 해서 등산 가자고 하면 처음에는 “어?” 하며 놀라고, 끈질긴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어...”라고 대답하면서 가게 되고, 등산을 다녀와서는 “어, 또 갈래!”라고 3단 변화를 겪는다. 등산 한번 다녀온 뒤, 그 매력에 빠져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 초보자가 가볼 만한 등산지는 바로 ‘여기’

등산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해발 600m에서 1,000m 사이에 산들을 먼저 다녀보길 추천한다. 유명한 산들이 아님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산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다. 추천하는 초보자 입문용 산은 구병산(충북 보은), 광덕산(충남 천안), 유명산(경기 가평), 대야산(경북 문경) 정도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글쓴이는 앞으로도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운동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살아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며 좀 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아이들의 꿈이 될 수 있는 멋진 체육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온오프를 종료한다. ⑦

5. 학생들과 한라산 정상.
6. 학생들과 마라톤 완주 후 단체사진.
7. 축구 심판을 본 후.
8. 자전거 일주.
9.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정.



줌 기초부터 학생 중심 온라인 수업까지

## 줌 수업에 날개를 달아 줌

저자. 김란, 이슬기, 장세영, 황성환

출판사. 테크빌교육

코로나19로 갑자기 찾아온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수업! 교사도 학생도 처음에는 컴퓨터 화면 속 얼굴들을 보며 수업을 하고 발표를 하고 과제를 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줌 수업에 날개를 달아 줌』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4명의 교사가 고민하고 연구하여 실제 교실에 적용한 결과물이다.

기초적이지만 필수인 줌 기능 사용법부터 수업 적용 방법, 나아가 학생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나가기까지의 과정과 실제 학생 반응이 좋았던 줌 수업 사례 90가지를 소개한다.

이 수업 사례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 역량으로 분류하여 소개했으며, 줌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실시간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이 주는 영향과 책임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모든 선생님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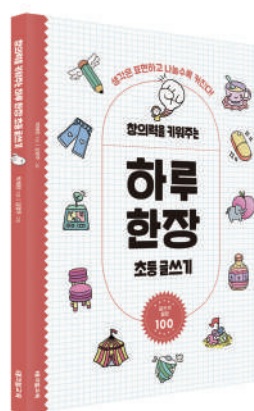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의 깨알 팁으로  
‘법린이 교사’ 탈출하기!

##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저자. 구술, 김동현  
출판사. 테크빌교육

수업 내내 자는 학생, 욕을 하는 학생,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 선생님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 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이다. 비교적 명확하게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목표나 교과 내용과 달리 이 같은 사안은 각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함부로 대처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때도 있다.

이 책은 교권·학폭 전담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던 구술, 김동현 변호사의 50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학교에서의 법률 상식, 이제는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생각은 표현하고 나눌수록 커진다!

## 창의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저자. 박재찬  
그림. 김영주  
출판사. 테크빌교육

생각하는 힘, 표현하는 힘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책이다. 이 책을 따라 매일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글쓰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된다. 창의력·상상력·논리력과 함께 매일 작은 성취를 맛보며 자아존중감도 크게 높아진다. 이 책이 던지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질문 100가지’에 대해 상상하고 생각하며 글을 써보자. 그리고 자신이 쓴 글 속에서 멋진 생각, 멋진 문구, 멋진 단어를 찾아 친구들과 서로 칭찬해보자. 박재찬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루 20분씩 꾸준히 글을 쓰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창의력을 키워주는 하루 한 장 초등 글쓰기』. 특히 초등 4~6학년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이 책과 함께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글쓰기 시간을 가져보자.

# 리얼 초등 교사 생존기 한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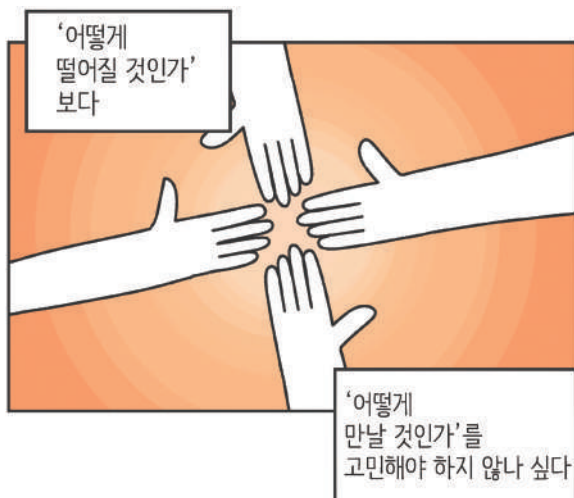
그림. 송정섭  
춘천 호반초등학교 선생님



오히려



공교육은 '만남'과  
'보살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SNS를 통해 웹툰을  
그리는 초등교사 송정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리얼 초등교사 생존기!  
섬섬한라이프'를  
연재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교사를 위한 콘텐츠도 함께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받고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섬섬한 라이프



영유아 부모 맞춤 영상 큐레이션 서비스

# 부모공감TV



양육통합플랫폼  
'부모공감' 사이트에서  
부모공감TV를 만나보세요!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

- ✓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분
- ✓ 유익하고 믿을만한 육아 정보를 찾고 계신 분
- ✓ 유튜브에서 육아 영상을 검색해 시청해보신 분

**주제별로 큐레이션 되어있는  
육아 영상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어요!**



건강/요리, 놀이/아이교육, 부모교육, 육아일상,  
육아템 등 영유아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맞게 영상이 큐레이션 되어있어 별도의 검색 없이도  
손쉽게 육아영상을 볼 수 있어요.

**신뢰도 있고 유익한 채널의  
육아 영상을 마음 편하게  
시청할 수 있어요!**



양육통합플랫폼 '부모공감'에서 직접 선정한 유튜브  
채널의 신뢰도 있고 유익한 영상을 즐기실 수 있어요.  
현재 부모/아이 교육전문가 및 인기 육아 유튜버 등의  
채널과 제휴를 맺어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부모공감TV는 영상 제휴 의사가 있는 육아 채널 유튜버들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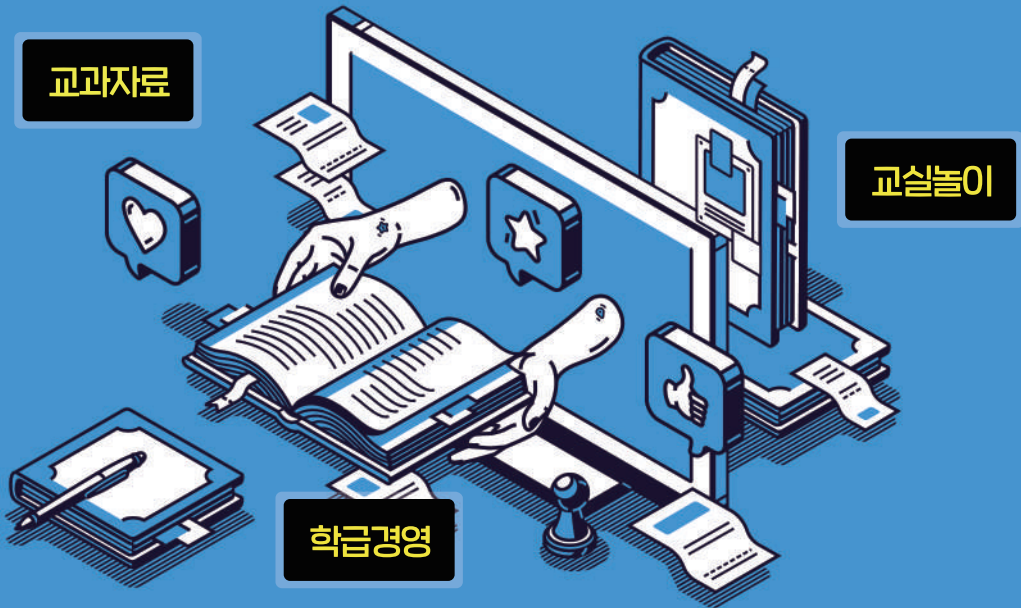
제휴문의

070-8282-0124 [www.bumoschool.com](http://www.bumoschool.com)



선생님의 '하드'에 잠들어있는 콘텐츠를 판매해보세요!

# '교사 콘텐츠' 공유 플랫폼 쌤동네



## 쌤동네 추천 유료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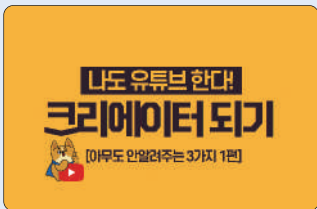
8주 완성 교사작가되기



학생용 ZOOM 리액션 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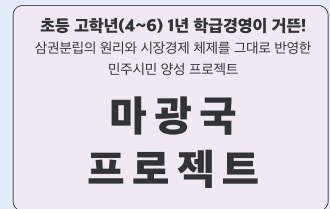
사진으로 해보는 교실활동놀이



교사 유튜브 시작  
크리에이터 되는 방법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  
비판적으로 읽기



초등 고학년(4~6) 1년 학급경영이 거뜰!  
삼권분립의 원리와 시장경제 체제를 그대로 반영한  
민주시민 양성 프로젝트

**마 광 국  
프로젝트**

1년치 학급경영 완성!  
마광국 프로젝트

# 같이 가치 쌤동네



쌤동네 문의 : 070-8282-0169 | <https://ssam.teacherville.co.kr>

👤 티처빌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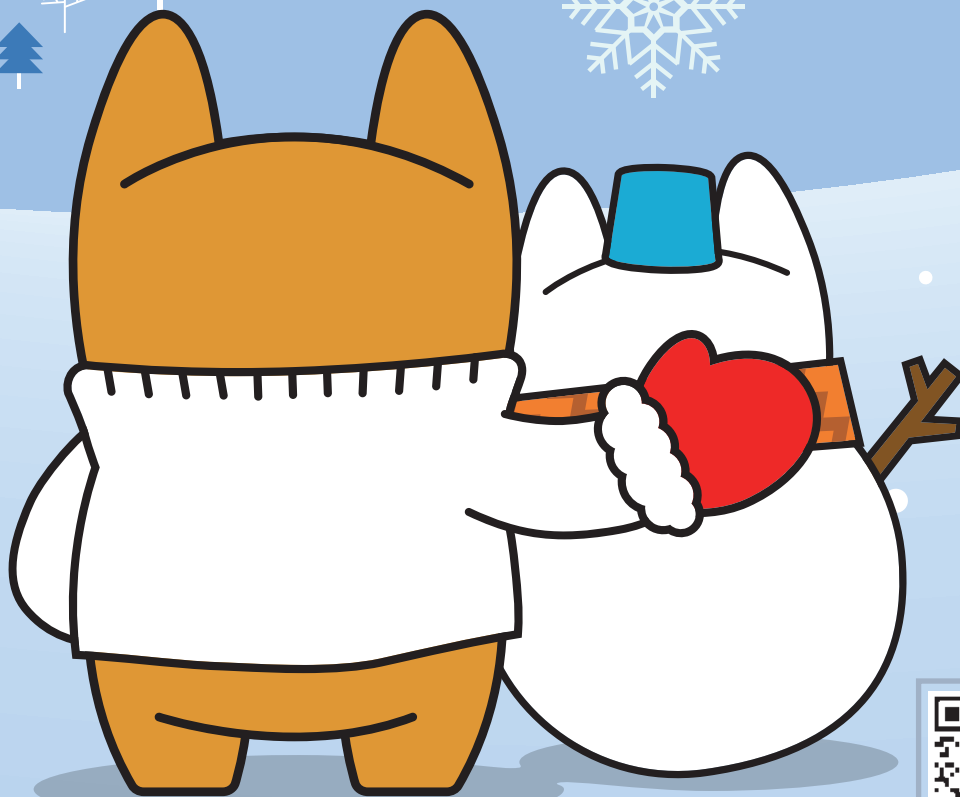
👤 쌤동네

👤 티처몰

👤 키즈티처빌

👤 즐거운학교

👤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